

# 쇠고기 먹었나요? ... 수입산 드셨군요!

### 한우 사육두수 감소에 값 치솟아 자급률 46%까지 하락

### 돼지고기도 소비량 증가로 시중유통 수입돈육 30% 육박

한우와 돼지의 자급률이 떨어지고 있다. 한우 값 상승으로 수입산을 찾는 소비자가 늘어 난 탓이고, 돼지는 전체 소비량이 늘어 수입 물량이 증가해 덩달아 자급률이 떨어졌다.

29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한우유 자급률은 지난 2013년 50.1%로 정점을 찍은 뒤 2014년 48.1%, 지난해 46%로 하락세를 기록했고 2019년에는 38.8%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쇠고기 자급률 하락은 정부의 암소 감축 정책에 따라 사육두수가 감소한 데 따른 것으로, 생산량이 줄어든 한우의 가격이 치솟으면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수입 쇠고기로 소비가 쏠린 결과다.

국산 돼지고기 자급률도 2013년 84%를 차지했으나 2014년 77.3%, 지난해 72.3%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돼지고기 자급률 하락의 이유는 쇠고기와는 다르다. 돼지고기는 국내 사육두수가 증가하고 생산량이 안정적이면서도 절대적인 소비량의 증가로 수입 돈육의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다.

국내 돼지 사육두수는 2013년 991만2000마리에서 2014년 1009만마리, 지난해 1018만7000마리로 증가했고, 같은 기간 국산 돈육 생산량은 85만3000t에서 83만t, 84만2000t으로 안정적인 추세를 유지했다.

대신에 같은 기간 우리 국민의 돼지고기 소비량이 급증했다. 2013년 104만9000t(1인당 20.9kg)이던 돼지고기 소비량은 2014년 111만8000

t(1인당 21.8kg), 2015년 116만t(1인당 22.5kg)으로 증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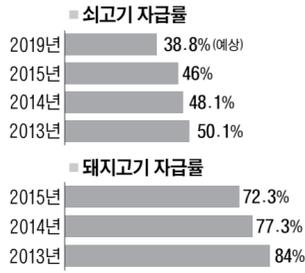
전체 돼지고기 소비 증가에 따라 발생한 수요는 수입 돼지고기가 채웠다.

돼지고기 수입물량은 2013년 18만4000t에서

2014년 27만3000t, 지난해 35만7000t으로 증가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돼지고기 사육두수가 늘었고 생산량도 안정적이면서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소비가 증가해 수입량 증가와 자급률 하락으로 나타났다”며 “러시아의 돼지고기 수입 중단 조치로 EU산 돼지고기가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물량이 증가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연합뉴스



수입량이 늘면서 국내 소와 돼지 자급률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장흥의 한 농가에서 소를 방목해 키우고 있는 모습. 사진은 특성사실과 관련없음. (광주일보 자료사진)

## ‘혼밥족’ 이유 연령별로 다르다

1인 가구의 증가로 나홀로 밥을 먹는 이른바 ‘혼밥족’이 늘어나는 가운데 직장인이 혼자 식사하는 이유를 두고 연령별로 차이를 보인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20대 젊은층은 여유롭게 식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혼자 식사하는 경우가 많지만, 30대 이상은 같이 식사할 사람을 찾기 못하거나 시간이 없어서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혼자 식사하는 경우가 많았다.

29일 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에 따르면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오유진 박사는 오는 6월 3일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열리는 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 학회 심포지엄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1인 가구 증가 양상 및 혼자 식사의 영향’이란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오 박사는 20~60대 직장인 475명(20대 178명, 30대 94명, 40대 98명, 50대 이상 105명)을

- 20대 “여유롭게 먹고 싶어”
- 30대 “같이 먹을 사람 없어”
- 40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대상으로 연령별로 혼자 식사하는 이유와 문제점 등을 설문 조사했다.

조사결과, 혼자 밥을 먹는 이유로 20대는 ‘여유롭게 먹음’(24.2%)을 첫손으로 꼽았고, 이어 ‘같이 먹을 사람을 찾기 어려워서’(23.6%), ‘시간이 없기 때문’(19.7%), ‘시간을 절약’(13.5%), ‘경제적 이유’(6.7%), ‘음식선택이 자유로움’(3.9%) 등의 순이었다.

이에 반해 30대와 40대, 50대 이상의 직장인은 같이 밥을 먹을 사람이나 시간이 없는 등의 이유로 혼자 식사하는 경우가 많아 20대와 대

조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30대는 ‘같이 먹을 사람을 찾기 어려워서’(38.7%), ‘시간이 없기 때문’(21.5%), ‘시간을 절약’(16.1%) 등을, 40대는 ‘시간이 없기 때문’(29.2%), ‘같이 먹을 사람을 찾기 어려워서’(27.1%), ‘시간을 절약’(14.6%) 등을, 50대는 ‘같이 먹을 사람을 찾기 어려워서’(37.9%), ‘시간이 없기 때문’(19.4%), ‘시간을 절약’(12.6%) 등을 혼자 식사하는 주요 이유로 들었다.

전체 조사대상자들은 혼자 식사하게 되면 ‘식사를 대충하게 되거나’(45.8%), ‘패스트푸드(인스턴트 식품)를 주로 먹게 되고’(19.1%), ‘빨리 먹게 되며’(15.3%), ‘대화 상대가 없어 식사가 즐겁지 않은 점’(7.8%) 등을 혼자 식사할 때의 문제점으로 꼽았다.

연합뉴스

## 삼계탕 중시장 본격 수출 한·중, 후속절차 마무리

TV 드라마 등을 통해 중국에 널리 알려진 삼계탕이 본격적으로 중국 시장에 수출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9일 “삼계탕의 중국 수출을 위한 한국과 중국 정부 간 후속 절차 협의가 모두 마무리돼 내달 중 수출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정부와 국내 축산업계는 2006년부터 중국으로의 삼계탕 수출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검역이나 위생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아 수출길이 쉽게 열리지 않았다.

그러다 지난해 10월 말 한중 정상회담 당시 양국 정부가 ‘삼계탕 중국 수출 검역·위생 조건’에 합의하면서 후속 협의가 급물살을 탔다.

삼계탕은 드라마 ‘태양의 후예’에 등장한 이후 유행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으며, 이달 초에는 한강에서 중국인 단체 관광객을 위한 ‘삼계탕 파티’가 열리기도 했다. 연합뉴스

## 주간 증시 포커스

### 美 고용지표·MSCI 조정 주목 시가총액 상위종목 수급 부정적 중소형주 상대적 강세 지속될 듯

5월들어 하락세를 보이던 코스피지수가 모처럼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에 힘입어 1969포인트까지 상승했다. 국내증시는 미국의 기준금리인상과 경제지표의 결과에 따라 밀접하게 영향을 받는 모습이었다. 지난 24일 미국의 경제지표가 양호하게 발표되며 미국증시가 급등하자 25일 외국인과 기관은 전기전자와 화학업종을 중심으로 1249억원과 2075억원을 순매수하며 지수상승을 이끌었다. 한주간 외국인과 기관은 실적개선키대미가 있는 SK하이닉스에 가장 많은 순매수를 보였다. 코스닥지수도 기관이 1015억원을 순매수하며 690선을 회복했다.

외국인 순매수는 원달러 환율의 방향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이었다. 미국경제지표호조와 글로벌유가 상승, 그리스 부채협상 타결 소식 등으로 글로벌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심리가 다시 회복되면서 최근 급격하게 상승한 원달러환율이 강세로 전환되며 1170원대까지 하락한 것이 외국인 국내시장에서 다시 순매수를 보인 이유로 보인다.

하지만 지난주 KDI가 올해 한국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고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완화강세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최근 시장을 주도했던 일부 정치데미주와 중소형 제약주의 급등양상은 지난주를 정점으로 진정되는 모습이고 일부 종목은 급락양상을 보이며 시장에 다시 충격 주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외국인과 기관수급은 제한적인 상황이고 코스피지수의 추가적인 상승도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6월 중순 선물만기와 FOMC회의까지는 실적개선과 개별적인 이슈가 있는 중소형주의 대형주대비 상대적 강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여 중소형주의 종목 찾기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주는 몇 차례 언급했듯이 5월 31일에 예정된 MSCI 관련 수급이슈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지난 5월13일 발표했던 MSCI 반기리뷰에서 LG생활건강우선주 등 31개종목이 편입되고 두산 등 6개종목이 제외된다. 그리고 지난해 11월 MSCI 인덱스 반기리뷰에서 알리바바 등 미국에 상장된 중국ADR 13개 종목을 편입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11월말 50%를 편입하고 이번주 31일에 남은 50%를 편입하게 된다.

지난해 11월말 지수편입에 따른 리밸런싱 관련자금을 중심으로 외국인 비자의 순매도가 7000억정도 출회되었던 것을 생각하면 사전에 준비가 되었다고 해도 삼성전자와 현대차 등 시가총액 상위종목의 수급부담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주 발표예정인 미국 5월고용지표에서 큰 폭의 부진만 없다면 6월 FOMC에서 기준금리인상은 기정사실화 될 것으로 보이고 브렉시트, 중국 A주 MSCI 부분편입 결정 등 수급에 부담을 줄 이벤트가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주식비중 확대보다는 일정 현금비중을 유지

하고 상승추세가 유지되며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양호한 중소형주의 제한적인 대응이 좋아 보인다.



정계두 <유진투자증권 광주북지점장>

## 대 지

### 투자 가치 좋습니다

- 전남 여수시 서교동 668-7, 8번지 서교동 로타리 우리은행 바로 옆
- 대지 260평 (120평 140평 분할 가능)
- 일반 상업지역 / 6차선 도로 접 / 현, 주차장
- 시세 / 감정가 - 23억원
- 용 12억 8천만원 있음 / 법인체 인수 가능
- 매매 - 협의
- 병원 / 사무 / 무인텔 / 상가 / 대형마트 등등 적합
- 1층 조립식 건축 후 상가 임대료 1,200만원 예상
- 주인직매 H. 010-8829-6876

## 숙 박

### 호텔급 대형 모텔

- 전남 구례군 산동면 관산리 732-1번지 지리산 온천지구 내 송원리조트 앞
- 대지 573평 건물 719평 객실 58개
- 시세 / 감정가 - 15억
- 매매 - 10억 (조정가능)
- 경매로 7억 3000만원에 낙찰
- 용 6억 3000만원 있음, 법인체 인수 가능
- 현재 리모델링 공사 준비중 (공사비 4억 예상)
- 리모델링 후 연 4억 이상 순수익 가능
- 리모델링 후 20억 이상 매매 가능
- 소유자 H. 010-3605-5000

## 오천경매

▶ 투자 하실 분! 공동 투자 가능 연 20% 수익 보장

▶ 비법 배우실 분! 특수물건만 취급 교육비 등 1200만원

▶ 사무실 같이 쓰실 분!

대표 최선규  
H.010-3605-5000